

「시민군 윤상원」 그의 실체

80년 5월의 광주, 진실규명은 국민모두의 몫

吳基文 内外政策研究所 研究委員

지난 1993년 우리가 우리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한동안 스스로가 잘한 일이라고 서로를 치하했다. 어려운 문제인 광주사태까지를 패도난마의 기세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문민대통령의 등장을 가장 반대했던 그곳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오히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이른바 TK들은 팽을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대통령으로 뽑았으나, 환호를 보낸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중산층이하라 부르는 노동자·농민 그리고 도시빈민 즉 저항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날밤을 세워 술을 마셔도 흥분된 가슴에 취할 줄을 몰랐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최고 통치자 주도하의 노동법 개정에 그래도 과거의 통치자가 좋았다는 역

설을 전개하며 거리로 나서 정권의 퇴진을 주창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장기집권내지 군사정권의 통치에 반발하다 진압군(그들은 진압군을 타도대상의 적으로 부름)에 사살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死者의 삶이, 한 지방방송의 TV드라마로 제작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투사(?) 윤상원

그 방송은 일부 지역에는 방영이 되고 일부지역에는 안내 프로그램과는 달리 방영이 되지 않아(대구·안동·포항의 영남과 전주지역) 강한 원성을 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름하여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 이다.

그 역시 1981년 그당시에는 불법의 광주사태를 주도한 역도였었으나, 1993년 문민의 현정권 출범과 함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다 정의롭게 산화한 항쟁의 주역으로 복권된 장본인이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의 살아남은 동료들이 또다시 그 날처럼 현정권의 타도를 위하여 투쟁하는 지금! 그는 지하에서 마냥 복권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투쟁자들을 선동하며, 과격투쟁을 지지할 것인가?

아마 '시민군 윤상원'의 지난 12월 17일 밤 12시의 부활은 그가 또다시 과거처럼, 정의로운 항쟁의 주역으로 복권되었음에 아랑곳없이 투쟁했을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일부 지방계열 방송에서는 방송사의 궁색한 변명과는 달리 방영을 안했는지도 모른다.

속설처럼 계급혁명가로서의 윤상원이라면 1980년 5월의 정의로운 광주항쟁은 오히려 그에게는 허울 좋은 멍에이고 못다이룬 혁명이므로, 다시 원점인 불법의 광주사태로 역사를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MBC의 지방계열사(광주지역)의 프로이긴 했지만, '시민군 윤상원'이라는 TV프로는 1980년 5월의 광주항쟁 혹은 광주사태의 새로운 지평을 연 프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1980년 5월에 대한 기록이나 제반 드라마들은, 80년 5월의 광주 전체를 다루었지 특정의 개인을 다룬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TV속의 윤상원은 끝까지 투쟁하는 시민군이다. 다만 정확하게 어떤 시민

군인지는 80년 5월 광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전체적 내용은 윤상원을 불의에 저항한 정의로운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MBC 광주지국에서 제작한 '시민군 윤상원'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는 80년 5월의 광주를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음을 나름대로 알 수 있게 해준다.

「들불야화」은 어떤 조직이었나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광주 관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심지어 국회에서의 청문회까지도 1980년 5월의 광주를 피바다로 몰고간 진압군의 잔학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5월 27일 밤의 도청에 진입한 투쟁강행파와 진압군의 공방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MBC 광주지국의 드라마는 비교적 그점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 즉 80년 5월의 광주에서는 엄청난 희생자를 막아보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TV매체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 TV속에 비쳐진 윤상원은 죽음을 불사하는 혁명가다. 그럼에도 TV라는 속성상 어떤 혁명가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시민군의 지

도자일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80년 5월을 '5·18 사건'으로 기억하는 바, 5·18사건을 처음부터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 것을 윤상원이 노동자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혁명투쟁의식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던 「들불야학」 주도의 '투사회보' 발행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쟁선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상원이 이처럼 80년 광주의 5월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하게 관여한 것이 광주 MBC의 '시민군 윤상원'에 소상히 나타나 있다. 다만 정확히 '들불야학'이 어떠한 조직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80년 5월의 광주가 5·18로 이름붙여지면서도, 5·12일 재발화(TV방영 내용)하고, 5·27 새벽 03:30분에서 05:22분까지 최대희생자를 낳게 하는 도청공방전까지의 전체적인 80년 5월의 광주를 윤상원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점을 밝혀줌이 MBC산하의 19개 계열사에서 몇 군데 불방이 되는 시시비비가 있었다고 해도 80년 5월의 광주에 대한 조명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민군 윤상원'의 다큐드라마는 윤상원이라는 개인을 중심에 두면서도 광주시민들 대부분의 의견을 대

변하는 시민 수습위를 총으로 위협하여 무력화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 수습위 총으로 무력화시킨 배후는

다큐드라마의 또하나의 특징은 현재까지도 80년 5월의 광주에 강경투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비오 신부 그리고 유일한 여자 수습위원 조아라의 강력한 투쟁반대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 다큐드라마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들불야학이라는 이념투쟁 씨클을 운영하던 윤상원등이 박관련을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만들고, 80년 5월에 젊은 대학생들이 시민군에 다수 가담하는 것도 밝혀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AP통신의 기자 테리 앤더슨의 해설에서 부터 시작되는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은, 윤상원이라는 한 투쟁지도자를 공산주의혁명가로 인식되는 장본인을 영웅시하여, 일부로 부터 80년 5월의 광주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80년 5월의 광주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시민군의 대표로서 윤상원을 TV의 다큐물로 표현하였다면, 일찌기 혁명시인 혹은 노동자를 주력군으로 한 공산혁명을 부르짖었던 혁명투사 박노해(본명은 박기평이며, 노해는 노동자 해방

윤상원은 80년 5월에 들어서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예비군
무기고 습격에 의한 무기의 확보, TNT의 제작 방법까지를
조직원들에게 가르친다.

이라는 의미의 약어)는 윤상원을 철저히 공산혁명의 투사로 묘사하고 있다.

96년 12월 17일밤 12시대에 편성된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이 아니었다면, 그는 80년 5월의 광주라는 커다란 사건의 일부로서 이미 끝났거나 잊혀질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12월 중순의 늦은 밤을 통해서 부활했고, 그것의 진실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바로잡기 위하여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화두를 새삼 제기했다.

어쩌면 수백명의 80년 5월 원혼들로부터 찬사와 비판을 함께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인물 윤상원! 그는 49년 전남 광산군 임곡면에서 출생한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 모두는 3수를 해서 어렵게 71년에 대학에 들어간 그가 평탄하게 직장을 다니며 집안의 살림을 보태고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맡아

주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고시라도 합격해주면 집안의 광영으로 기뻐할 사람들이었다.

“당신들, 다 빨갱이 아니야?”

그러나 그는 3년간의 재수를 통해 들어간 대학(전남대 정외과)에서 기약없는 훗날의 정의의 구현이나 영광보다는 투쟁을 먼저 접하게 된다. 그는 유신의 해인 1972년에는 군에 가있었기 때문에 1975년에 복학한다.

유실의 계절 군에 몸담았던 그는, 그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80년 5월의 예비검속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80년 5월을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주역의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역시도 피해자의 1인인지도 모른다. 80년 5월의 현장에는 파격한 투쟁 주창자도 윤상원까지

를 압도하고 배후에서 조정하는 또다른 세력이 있었음을 다큐드라마 '시민군운상원'은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노해에 의하면 75년 대학에 복학하여 일반적인 복학과 학생들과는 달리 공산주의 경제학, 페다고지(역압자의 교육학이라는 의미의 자본주의 체제 교육 비판의 책자)등을 학습하며 혁명가로서 성장한다. 특히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혁명가를 중요시한다.

그런 그가 남작직장으로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은행을 택한 것은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박노해는 그것이 혁명가 상원의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적고 있다.

78년 동료와 후배들의 권유와 의리 때문에 광주로 내려간 상원은 80년 5월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것처럼, 78년 8월부터 위천공단내 들어가 박용준·김영철 등 혁명의 동지들을 만난다. 그 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 1980년 5월 광주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이른바 '들불야학'이다. 이에 대해 박노해는 구성원 명관이의 말을 빌어 "당신들, 다 빨갱이 아니야?"하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가 박노해는 그를 설득 또 하나의 혁명가로 만든다.

79년에 들어서는 역시 빈농의 아들

인 박관현(전남대 학생회장)을 삼고초려하여 혁명대열에 끌어들인다. 그리고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만든다.

광주지역의 노동운동을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이끌던 윤상원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서울에서 광민이라는 공산혁명투쟁 고양의 이념서적만을 출판하던 이태복과 만나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련)을 만들면서였다.

전민련에서 상원은 중앙위원이 되고 혁명가로서 자신이 거둬남을 다짐하게 된다. 그런 윤상원은 80년 5월에 들어서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예비군 무기고 습격에 의한 무기의 확보, TNT의 제작 방법까지를 조직원들에게 가르친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

관련하여 박노해는, "광주봉기 이전인 5월 9일에 상원에 의해 무장준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중대한 사실이다." (월간 노동해방문학 1989, 5)고 지적하고 있다.

어떻든 80년 5월 광주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윤상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따라서 우리는 80년 5월의 광주 일지를 또다시 써야할 지 모른다.

'광주사태'나 '5·18항쟁'이라는 용어대신 5·18의 광주공산혁명으로 말

이다. 그러나 80년 5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뜻이 어느 것이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본인만이 아는 대답일 뿐. 누가 그것은 확연하게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없는 것이 80년 5월의 광주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의 경우도 어렵게 밝힌 것처럼 광주시민들의 대다수에 의한 새롭게 등장하는 전두환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투쟁과 몇몇이 주도한 과격한 투쟁과는 구분을 하고자 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번 가슴이 붙는 열차는 자신의 힘에 의해서 멈추지 못하듯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고 그와중에 윤상원과 보이지 않는 손들이 끼어들었다고 어렵פות이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극히 몇몇의 아웃사이드들이 "새벽 3시 30분쯤에 한국군은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아놀드 A 피터슨, 5·18광주 사태, 정동섭역, 1995. 9. 15)라며, 80년 5월의 광주를 6·25사변과 같은 내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내 NL주사파, NDR파, PDR파 혹은 21C연합이나 트로츠키파라는 모든 계급투쟁조직들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80년 5월의 광주를 혁명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공산정권의 경

우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80년 5월의 광주!

그것의 진실은 무엇인가?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우리의 무거운 숙제를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은 우리에게 1997년의 화두로 던지고 있다.

제2의 광주를 꿈꾸는 혁명가들

물론 한세기인 30년은 지나야 역사가 조금은 객관의 입장에서 바로 보인다 한다. 따라서 17년의 세월속에서 진실을 통채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무리인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그 작업을 우리는 시작해야 하고, 그것의 준비를 냉철히 해야한다. 냉정하게도 그것의 몫은 그 시대를 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곳과 이 땅에서 살아야할 사람들의 몫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향후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민주투사나 시민군이 아닌 혁명가로서 윤상원을 평가한 박노해나 남한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제2의 80년 광주를 꿈꾸는 혁명가들은, 오늘도 윤상원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나 경제 혹은 문예학습을 빙자한 혁명가를 양성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광주의 진실 규명은 이제 국민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본단**